

# 강남역 살인사건 5주기... “새로운 전환점 필요한 때”

### 페미니즘 대중화로 미투·혐오범죄 인식 ↑

### ‘여혐 대 남혐’ 단순화한 젠더 갈등 심화

### “온라인 소통이 극대화 불러...대면해야”

2016년 5월 17일 서울 강남역 인근 주점의 남녀공학화장실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은 한국 사회에 거센 후폭풍을 몰고 왔다. 가해자인 30대 남성은 “평소 여자들에게 무시를 많이 당해 왔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나 ‘여혐 대 남혐’으로 단순화한 갈등이 심화되면서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미투운동·디지털 성범죄로 문제의식 이어져

강남역 살인사건은 청년 여성들 사이에 ‘페미니즘’ 인식을 높였다. 지난 201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표 ‘한국사회의 성평등 현안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20대 여성 48.9%가 ‘자신은 페미니스트’라고 답했다. 이에 비해 20대 남성은 14.6%가 동의해 인식 격차를 보였다.

31세 여성 A씨는 “당시 대학원에 재학 중이었는데 뉴스를 통해 사건을 접했던 기억이 난다. 여자에게 무시 당해 화가 나 죽었다는 말에 ‘저 자

에 있었으면 내가 죽었겠구나’란 생각이 들었다”며 “여성혐오 범죄란 것도 그때 알게 됐다. 여자에 대한 우월감이나 편견을 갖고 있으니 무시하며 분노해 죽인 것 아니냐. 이후 사회를 보는 눈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높아진 페미니즘 인식은 미투 운동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다. 2018년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폭력 문제 제기로 촉발된 미투운동은 고은 시인·이윤택 감독 등 문화예술계,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 정치계로 번졌다. 학생을 향한 교사의 성희롱 문제를 공론화한 졸업생들의 ‘스쿨미투’도 뒤이었다.

이른바 ‘홍대 몰카 사건’과 ‘n번방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로 이어져 처벌 강화를 불러왔다. 스토킹 범죄, 데이트 폭력이 범죄라는 인식도 강화됐다. 미투 운동이 본격화된 2018년 1~8월 검찰청에 접수된 성폭행 사건은 전년 대비 14.3% 증가했다.

반면 계속되는 성별 대립으로 피로감이 높아진단 의견도 있다. 33세 남성 B씨는 “불과 몇 년 전에는 이런 중

류의 불편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한 쪽으로 치우친 사회에서 살았다는 생각은 든다”면서도 “주체 자체는 분명 의미있고 중요한 논의라고 생각하는데, 일부는 그저 자기 주장만 앞세우고 상대방은 무조건 틀렸단 식으로 반응하는 거 같아 제대로 된 대화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 “갈등 넘어설 새로운 전환점 필요한 때”

윤김지영 창원대 철학과 교수는 뉴시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강남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페미니즘의 대중화가 이뤄졌다. 20대 여성의 절반 이상이 자신이 페미니스트라고 답하고, 여성혐오라는 개념이 대중적으로 각인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사건 5주기지만 이에 대한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여성인권이 한 발 더 나아갔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장기화되지 못하게 하려는 반격이 체계적으로 일어난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치권이 모든 사회 문제를 젠더 갈등으로 귀결시킨



강남역 살인사건 5주기인 17일 오후 서울 강남역 10번출구 추모공간 앞에서 시민들이 작성한 추모 메시지가 부착돼 있다.

다고 봤다. 윤김 교수는 “청년들이 느끼는 사회적 불안과 주거 문제, 고립감을 상대 성별에만 퍼붓고 있다. 정치가 근본적 원인을 바라보지 못할 때 청년들이 대리전을 치르는 셈”이라며 “모든 불안정성을 젠더 갈등으로만 진단하는 것은 진짜 문제를 보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대면 소통이 줄어들고, 온라인으로만 소통하면서 극단화가

심해진다 우려도 나왔다. 대면 소통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공유해야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그는 “작은 그룹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 면 대 면으로 대화를 해나가야 한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새로운 분기점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한다”며 “사회가 청년 문제에 제대로 답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기동취재본부



휴일, 초여름 날씨에 방문객들로 북적이는 대형 쇼핑몰 부처님오신날인 19일 서울의 한 날 기온이 27도로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 쇼핑몰에 방문객들이 붐비고 있다.

## 노래방 손님 시비 오해 가스총 분사 40대 입건

광주 서부경찰서는 19일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은 다른 손님들에게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특수폭행)로 A(48)씨를 불구속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께 광주 서구 한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은 다른

손님들에게 가스총을 분사하고 호신용 3단봉 등을 들고 위협한 혐의다. A씨는 홀로 노래방을 찾아가다가 복도에서 큰 소리로 싸우는 다른 손님 일행을 보고, 자신에게 위협을 가한다고 오해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가스총과 3단 봉을 꺼내와 위협적 언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유우나기자

## 지역 여성계 “교수 성폭행 의혹 사건, 영남대가 책임져야”

###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피해자 보호조치 및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 촉구

영남대 교수 성폭행 의혹 사건이 경찰 수사에 이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오르며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는 가운데 지역 여성단체들이 대학 측에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대구여성회 등 24개 단체로 구성된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18일 오전 영남대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 중단과 관련해 징계 및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단체는 “영남대는 피해자 중심의 해결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함에도 지난 2월 피해자가 고소한 이후에도 가해자와 분리조치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 성폭력대책위를 열어 가해자에 대한 직무·수업배제, 분리조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다”며 대학 측의 대처를 비판했다.

이어 “학내에서 발생한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문화로, 학교 측의 처리과정과 2차 피해 유발행위들은 조직문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이라고 꼬집었다. 피해를 호소한 A교수는 지난 11일 실명으로 ‘학교 측이 성폭력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게재했다.

청원 글에서 “2019년 6월 같은 대학 동료교수인 B교수로부터 강간을 당해 센터장이었던 C교수에게 이를 알리며 분리조치를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돌아온 말은 ‘시끄럽게 하려면 나가라’는 말이었다. 이후 보직을 없애고 회의에도 부르지 않는 등 업무에서 배제했다”며 “B교수를 강간죄로 고소하고 센터장이던 C씨도 고소했다”고 썼다.

A교수의 글은 이후 규정에 따라 학교명과 관리자 실명이 익명으로 처리됐지만 20만 명 이상 동의를 받아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지난 13일 센터장인 C씨는 영남대 자유계시판에 이 같은 청원 내용을 반박하는 자료를 냈다. 그는 입장문에서 “A교수가 주장하는 성폭력은 센터 설립 이전에 발생한 일어서 은폐의 여지가 없으며 (자



18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 경산캠퍼스에서 대구여성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영남대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중단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신은) 지난 2월8일부터 부총장직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며 “센터장이 신고를 못하게 강요했다는 A교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영남대도 같은 날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떠한 사실을 덮으려거나 축소하지 않았다.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조사를 해 왔으며 수사기관에서도 조사 중이다”고 해명했다.

서선욱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